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Conflict-Coping Strategies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 정선영***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Yeong-H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 Jeong, Sun-Yo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flict-coping strategie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and marital peri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8 couples from Cheongju who have been married less than fourteen years.

For husbands and wives who have been married less than 7 years, nothing moderated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However, for husbands who have been married between 8 and 14 years, their conflict withdrawal moderated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For their wives, their conflict-expression strategy and their husbands' conflict-expression strategy moderated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주요어(Key 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갈등대처방식(conflict-coping strategies),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I. 서론

결혼은 성숙해가고 변화해가는 두 사람이 각자의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만족감을 제공하는 상호보완적

인간관계이다. 현대가족에게 부부관계는 그 어느 가족관계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혼의 주요 동기가 개인의 정서적 친밀감으로 변화하면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이 가족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Giddens, 1997; Beck-Gernsheim, 1999). 또한 이제는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권혜정·채규만, 1998)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관련된 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김영희 (E-mail : enjoy@chungbuk.ac.kr)

*** 교신저자 : 정선영 (E-mail : jsuny@knu.ac.kr)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Gottman(1994)은 결혼생활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함께 공존하지만, 결혼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며 이러한 부정적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것이 부부갈등이라고 하였다. 통계청(2005) 자료는 우리나라가 부부갈등 혹은 낮은 결혼만족도로 인한 이혼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 현상은 부부 자신들의 신체적·정서적 영역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Fincham & Bradbury, 1993; McAlister, 1995; Miller et al., 1999; Wilckrama et al., 1997),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자녀들의 행동장애나 비행, 불안 등과 같은 내적·외적 문제(이훈구, 2004; Brody et al., 1996; Kitzman, 2000)를 일으키고 있어 부부갈등이나 낮은 결혼만족도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학자들은 부부갈등 자체 보다는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인 갈등처리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이혼이나 별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Bowman, 1990; Gottman, 1994b). 이는 부부가 항상 싸운다거나 전혀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가 결혼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박영화·고재홍, 2005; Bowman, 1990; Heavey et al., 1993; Gottman, 1994b).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완화시키는 갈등대처방식의 탐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김경신·김오남, 1996; 김재경, 1991; 손성숙, 1999; 이선미·전귀연, 2005; Driver & Gottman, 2004),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권오실, 1995; 송말희, 1990; 최규련, 1994;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고현선·지금수, 1995; 조유리·김경신, 2000; Bowman, 1990; Christensen & Heavey, 1990; Gottman & Krokoff, 1989)와 같이 두 변인간의 영향력이나 상관관계 또는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를 모두 다룬 선행연구(김은신, 1992; 김은정, 1992; 이선미·전귀연, 2001)도 소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만을 살펴보고 있어 갈등대처방식이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많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갈등대처방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는 일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는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가 성

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부부갈등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김민녀·채규만, 2006)가 있는 반면 아내가 남편보다 갈등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송말희, 1990; 최규련, 1994)가 있다.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지각하는 만족도가 아내보다 높다고 나타나 있다(이선미·전귀연, 2005; Levenson et al., 1994). 더욱이 갈등을 겪을 때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남편은 아내보다 행동표출, 이성적 대처 및 갈등회피를 더 많이 사용하고(권오실, 1995; 노치영·최혜경, 1996; 이선미·전귀연, 2001; 이현주, 1997; Kurdek, 1994), 아내는 남편보다 요구적이거나, 언어적 표출 또는 외부도움요청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현선·지금수, 1995; 이미영·박혜인, 1995; 이현주, 1997; 최규련, 1994).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관계 연구에 반드시 성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Gottman(1999)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욱이 Gottman과 Levenson(2000)은 삶의 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화를 연구하면서 결혼의 존속에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간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첫 번째 결정적인 기간은 결혼 후 7년 이하로, 이 기간은 부부가 결혼생활이나 배우자에게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빈번히 일어나 결혼기간 중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결정적인 기간은 결혼 중기에 접어드는 결혼기간 14년 차이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역할변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요구되어 부부갈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 주기 동안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Adelman et al., 1996; Orbuch et al., 1996; Steinberg & Silverberg, 1987; White & Booth, 1991). 갈등대처방식의 경우에도 결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인 반면 결혼 중기로 넘어갈수록 갈등대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천혜정 등, 2006). 그러므로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두 번의 결정적인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을 선행연구는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과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결혼생활을 강화시키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부부교육이나 상담 및 치료 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에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결혼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2-1] 결혼기간 7년 이하의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2-2] 결혼기간 8~14년 사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의 개념

결혼이란 서로 의견도 성격도 가치관도 다른 남녀가 맺어져서 가정을 꾸미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도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갈등은 문제도 복잡해지고 큰 싸움으로까지 번진다(Markman et al., 2001).

부부갈등을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라는 Coleman(1984)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요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현대의 부부는 상호간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부부 모두 만족스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 쪽이라도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존재한다(이동원 등, 1998). 또한 결혼생활에서의 정서적 만족감이 고갈될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 부부결합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김민녀·채규만, 2006) 배우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의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문제(Miller et al., 1999; Kitzman, 2000)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갈등을 지각함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활발한 사회진출, 자립의식 및 평등의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결혼생활에서 갈등(고현선·지금수, 1995; 송말희, 1990; 오선주, 2002; 최규련, 1994) 및 스트레스(김명준 등, 2003)를 더 많이 느낀다. 이와는 반대로 결혼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김민녀와 채규만(2006)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갈등점수가 아내의 갈등점수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장혜경 등, 2005)에서는 심각한 부부갈등의 경험은 3~40대의 부부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갈등을 느끼는 영역에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의 생활

방식이나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로 인한 부부갈등의 경험은 남편에 비해 아내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의 부모나 형제 문제 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갈등의 경험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의 차이를 살펴본 오선주(2002)는 결혼초기보다 결혼중기의 부부가 결혼갈등이 높다고 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들(Kurdek, 1993; White et al., 1986)도 자녀출생 후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부상호간에 향하던 에너지는 줄게 되며,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증가하고 상호작용의 궁극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들(김갑숙·최외선, 1992; 최규련, 1993; Orbush et al., 1996)은 결혼기간과 경제수준이 깊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과를 토대로 결혼기간 후기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결혼중기보다는 초기에 더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초기의 부부관계는 성장배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합하여 상호 적응해 가며, 부부관계 뿐 아니라 부모됨의 준비, 일과 가족의 조화, 재정계획, 친족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김혜경, 1987; 유계숙 등, 2003; 조성경·최연실, 2006). 이처럼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의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결혼기간을 세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갈등은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Prager, 1991). 이에 따라 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즉, 잘 다루어진 부부갈등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발달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오히려 관계 내의 성장을 조정할 수 있고 친밀감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Gottman & Krokoff, 1989). 또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이입이나 비방어적인 적극적 경청, 그리고 동의와 승인을 향한 유머각각을 사용하게 되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갈등 그 자체가 결코 결혼을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Gottman, 1992; Natarius & Markman, 1993; Straus, 1979). 그리고 Vuchinich(1987)는 가족 상호작용에서 반드시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복종, 타협, 무관심, 철회의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가족치료 학자들이 가장 좋은 갈등해결 방법으로 권장하는 타협을 사용하는 가족은 실제로 14%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갈등대처방식은 갈등대응행동(송말희,

1990), 갈등해결방법(김은정, 1992), 문제해결전략(유은희, 1994), 문제해결행동(최혜경·노치영, 1994)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선미와 전귀연(2005)의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개인이 어떤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대처방식은 갈등해결행동과는 달리 갈등상황에서 반드시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도 포함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정의함에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이 그 갈등 상황에 대응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Gottman(1994a)은 부부의 갈등상황에 대한 중단실험연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에 관련된 갈등유형으로 갈등회피, 갈등폭발, 합리적 갈등해결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Kurdek(1994)은 이러한 Gottman(1994a)의 실험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갈등해결방식을 긍정적 문제해결방식, 갈등폭발, 갈등회피, 순응으로 나누어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갈등폭발과 갈등회피, 순응은 부정적 해결방식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적 상관을 갖는 반면, 긍정적 문제해결방식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로써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urdek(1994)의 갈등해결방식척도를 바탕으로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유형을 갈등상황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하려는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갈등상황에서 갈등상황자체나 자신의 기분을 배우자에게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갈등표출 대처방식, 갈등상황이나 배우자를 회피하는 갈등회피 대처방식, 자신의 입장이나 갈등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철회의 4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은 성별과 결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Thomson과 Walker(1991)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가 결혼생활에 대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로서 자신을 보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행동표출(이현주, 1997; 최규련, 1994), 이성적 대처와 회피(권오실, 1995), 무시형(고현선·지금수, 1995), 합리화 또는 부정의 대응행동(송말희, 1990)을 많이 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요구적(고현선·지금수, 1995; 이미영·박혜인, 1995)이고, 외부도움요청(조성경·최연실, 2006; 최규련, 1994), 감정표현, 기분전환, 의견강요(권오실, 1995), 표현형, 순종형, 비난형(고현선·지금수, 1995), 언어적 표출(이현주, 1995)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선미와 전귀연(2005)의 연구에 따르면 아내의 경우 회피형의 갈등

대처방식을 이성형의 갈등대처방식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남편에 비해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는데 더 익숙하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 더 적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치영과 최혜경(1996)은 부부관계 유지에 아내의 긍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다 기능적인 부부관계의 향상은 남편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부부관계 특성을 보여주었다.

결혼기간에 따라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천혜정 등(2006)의 연구결과 결혼지속연수 0~4년, 5~9년, 15~19년 집단의 경우에는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에 있어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 폭력, 회피, 신앙 순으로 나타났으며, 10~14년 집단의 경우에는 이성적 대처, 신앙, 외부도움, 폭력, 회피의 순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결혼기간에 비해 결혼지속연수 0~4년 집단이 외부도움 요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지속연수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20년 이상 집단이 신앙을 갈등대처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혼지속연수가 길수록 문제해결에 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성별과 결혼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부부간의 갈등이란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한계가 있어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도 해결이 가능한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해결 가능한 부부갈등은 해결과정을 통하여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지만, 해결불가능한 지속적인 갈등은 어떠한 해결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발생하는 문제 자체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격렬하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겪게 되면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며, 결국에는 문제 자체의 초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무시하게 되어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Gottman, 1994).

결혼초기의 부부에게서 갈등과 부부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중단연구(Noller et al., 1994)에서는 갈등에 직면하는 것이 결혼생활에 유익하지만 갈등을 대처함에 있어 적대적인 비난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나타났다. 또한 불행한 부부는 갈등의 빈도가 더 많았고, 갈등을 협상하거나 표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어떤 경우에는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leson & Denton, 1997). 이렇듯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는 부적인

상관을 갖고 있어, 결혼생활의 어느 한 영역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아진다.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송말희(1990)는 갈등정도에 따라 대응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합리화, 부정방식 그리고 회피, 억압 방식의 대응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그에 따라 전체 부정적 대응방법 역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갈등이 낮은 집단은 긍정적인 대응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중 특히 자기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대응행동은 더 적게 취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아내들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내의 또 다른 연구(박경란·이영숙, 2005)에서는 아내의 지배적 갈등대처방법은 갈등을 높게 하는 방법이며, 아내의 타협적 갈등대처방법은 갈등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Gottman & Krokoff, 1989)에서는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은 갈등정도가 낮은 상황의 대화에서, 아내는 갈등정도가 높은 상황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였으나,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릴 때 갈등대처정도와 결혼만족도가 모두 낮았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문제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느낄 때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et al., 1986). 한편, 갈등해결유형을 대결형, 후퇴형, 순응형으로 나누어 2년에 걸친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조사한 Kurdek(1994)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내의 결혼만족이 남편의 갈등해결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갈등해결방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갈등해결방법은 본인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20%는 남편의 회피와 아내의 적대감이고(Robert & Krokoff, 1990), 갈등 시 아내가 요구형인 경우보다 남편이 요구형인 경우와 아내가 남편보다 후퇴형일 때 결혼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Heavey et al., 1993),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아내는 대결형을 남편은 후퇴형을 많이 사용했다(Kurdek, 1995). 또한 미국 백인과 흑인 부부의 부모기로의 전이 후 갈등과 결혼의 질을 연구한 결과(Crohan, 1996) 부모가 된 이후 더 잦은 갈등을 겪고 낮은 결혼의 질을 나타냈으며,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파괴적 갈등대처방식이 보다 낮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었으며, 갈등 시 조용히 위축되는 수동적 회피는 보다 높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었지만 갈등 후 냉정하게 떠나는 적극적 회피는 보다 낮은 결혼만족도를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남편이 이성형일 때 아내의 유형과 관계없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요구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남편이 인지한 아내의 갈등대처유형이 양보형, 외면형, 공격형, 비난형의 순서인 경우와 아내가 인지한 남편의 갈등대처유형이 이성형인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가 배우자의 갈등대처유형을 변덕형으로 인지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최규련(1995)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경우에는 외부도움 요청을 대처방안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회피적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남편의 경우에는 회피와 행동표출적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갈등해결방식의 '회피형'과 '통제형'은 결혼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했으며(정경숙, 1998), 부부싸움 대처행동 중에서 감정적 협상과 인지적 협상은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강학중·유영주, 2003).

최근의 연구(이선미·전귀연, 2005)에서는 남편의 경우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상관없이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을 이성형으로 인지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아내는 남편과는 달리 자신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공격형*공격형인 경우보다 오히려 공격형*회피형 일 때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권력관계에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순종적이고 여성적인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아내의 경우 자신에 비해 남편이 무능하고 문제해결에 소극적이고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 더 불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주부와 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규련, 1993)에서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반응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행연구(홍원표, 1993; 이영자·장영애, 2002)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갈등관리방법을 연구한 결과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의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부부갈등 결과와 부부갈등관리도 낮은 정적 상관을 부부갈등정도와 갈등결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불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본 천혜정 등(2006)의 연구결과 결혼기간

0~4년에 속하는 집단과 10~14년에 속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화갈등이 높을수록 회피를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았으며, 결혼기간 5~9년에 속하는 집단은 성격갈등이 높을수록 회피를 많이 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았고, 결혼기간 15~19년에 속하는 집단은 대화갈등이 많으면 결혼불안정성이 높았다. 그리고 결혼기간 20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성갈등이 많을수록 회피 및 외부요청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신앙의지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상황에서 부부가 어떠한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갈등대처방식이 갈등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5개의 유치원을 선정하

여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결혼생활 14년 이하의 부부 17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각 유치원의 교사로부터 가정으로 배부한 질문지를 유아의 부모가 작성하여 유치원에 제출한 것을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이경희(1998)가 개발한 부부갈등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각 배우자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사고방식, 성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영역과 부부간 대화, 애정, 성, 배우자의 부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부의 관계적 갈등영역, 또한 주거·주택계획, 금전관리·소비, 여가생활, 가사노동분담에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생활의 갈등영역, 부부 두 사람이외의 관계들로 인해 발생하는 영역으로 자녀훈육·교육, 친·인척, 직장이나 사회활동에 기인하는 제삼자 갈등영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 당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높게 지각함을 나타내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아내 연령	30세 이하	22(12.4)	남편 연령	35세 이하	72(40.4)
	31세~35세	97(54.5)		36세~40세	79(44.4)
	36세 이상	59(33.1)		41세 이상	27(15.2)
	계	178(100.0)		계	178(100.0)
아내 학력	고졸 이하	79(44.4)	남편 학력	고졸 이하	54(30.3)
	대졸 이상	99(55.6)		대졸 이상	124(69.7)
	계	178(100.0)		계	178(100.0)
아내 직업	전문직	13(6.9)	남편 직업	전문직	8(4.8)
	공무원	19(10.6)		공무원	21(11.7)
	회사원	7(3.7)		회사원	82(44.7)
	자영업	3(1.6)		자영업	27(16.0)
	생산/기술/서비스	9(4.8)		생산/기술/서비스	38(21.7)
	가정주부	127(72.3)		기타/무직	2(1.1)
계	178(100.0)	계	178(100.0)		
결혼 기간	7년 이하	95(53.4)	교제 기간	1년	71(40.3)
	8~14년	83(46.6)		2년	38(21.6)
	계	178(100.0)		3년	24(13.6)
연 애	103(57.9)	4년 이상		43(24.4)	
결혼 유형	중매+연애	75(42.1)	계	176(100.0)	
	계	178(100.0)	총 수입	200만원 미만	33(18.5)
불 교	47(26.6)	200~300만원		65(36.5)	
기독교/천주교	45(25.4)	300~400만원		42(23.6)	
기타/무교	85(48.0)	400만원 이상		38(21.3)	
계	177(100.0)	계	178(100.0)		

신뢰도는 남편 .90, 아내 .87이었다.

2) 갈등대처방식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Kurdek(1994)의 갈등해결방식척도(Conflict Resolution Inventory: CRI)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문제해결(예: 싸움의 원인이 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갈등표출(예: 부부싸움 중에 아내-혹은 남편-에게 비난을 퍼붓곤 한다), 갈등회피(예: 나는 아내-혹은 남편-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아내-혹은 남편-와 멀찌감치 떨어져 행동하고, 아내-혹은 남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철회(예: 나는 싸움 중에 나 자신을 위해 옹호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 문제해결과 갈등표출은 각각 4문항, 갈등회피는 5문항, 철회는 2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점 Likert로 측정된다.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척도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갈등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출하거나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갈등상황에서 더 많이 철회함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남편의 경우 긍정적 문제해결 .74, 갈등표출 .83, 갈등회피 .76, 철회 .53으로 나왔으며, 아내의 경우 긍정적 문제해결 .79, 갈등표출 .86, 갈등회피 .76, 철회 .65로 남편과 아내 모두 철회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문항 수에 영향을 받는 신뢰도 계수로서,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수가 2문항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Bohmstedt, 1970).

3) 결혼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성(2001)이 제작한 결혼만족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의 내용이 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결

혼만족도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의 경우 .92, 아내의 경우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들 간의 상호작용 항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에서의 부부간 차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부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사용정도는 남편의 경우 긍정적 문제해결(2.80), 철회(2.12), 갈등회피(2.04), 갈등표출(1.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경우 긍정적 문제해결(2.81), 갈등회피(2.12), 철회(1.92), 갈등표출(1.88)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긍정적 문제해결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갈등표출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고현선·지금수, 1995; 송말희, 1990; 이경희, 1998; 천혜정 등, 2006; Kurdek, 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갈등회피보다는 철회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아내의 경우 철회보다는 갈등회피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을 대처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대처 방식의 사용은 부부가 동일하지만 수동적인 대처방식의 사용은 부부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갈등

<표 2>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간 차이

N=178

변 인	남 편		아 내		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부부갈등	1.66	.48	1.70	.43	-1.11
긍정적문제해결	2.80	.58	2.81	.55	-1.17
갈등대처	1.75	.65	1.88	.66	-2.26*
방식	2.04	.57	2.12	.62	-1.52
갈등회피	2.12	.68	1.92	.57	3.33**
철회	2.12	.68	1.92	.57	3.33**
결혼만족도	3.43	.53	3.20	.54	5.75***

*p<.05., **p<.01., ***p<.001

표출($t=-2.26, p<.05$)과 철회($t=3.3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갈등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아내보다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철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남편에 비해 갈등표출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갈등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언어적 대처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Kurdek, 1994; 고현선·지금수, 1995; 이선미·전귀연, 2001; 이정희, 1998)나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신체적 공격을 많이 한다(이현주, 1997; 최규연, 1994)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남편의 경우 아내에 비해 갈등상황에서 더 많이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관계에서 갈등상황을 관찰·실험한 Gottman과 Krokoff(1989)의 연구결과와 또 다른 선행연구결과(Christensen & Shrenk, 1991; Baucom et al., 1990)와 일치한다. 즉, 일반적으로 아내는 부부관계에서 남편보다 더 많은 친밀성을 원하기 때문에 친밀성이 파괴된다고 느끼는 갈등상황 시에 더 요구적이며, 남편은 부부관계에서 아내보다 더 많은 독립성을 원하기 때문에 갈등 시 숨어버리게 된다. 또한 국내의 연구결과(이선미·전귀연, 2001; 최혜경·노치영, 1994)에서도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구체적인 행동

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미영·박혜인, 1995)고 밝히고 있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좀 더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차이($t=5.75, p<.001$)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의 지각수준이 성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고현선·지금수, 1995; 김민녀·채규만, 2006; 오선주, 2002; 이선미·전귀연, 2005; 정현숙, 1996; 최선희, 2002; Lussier & Saborin, 1999)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2. 결혼 기간에 따른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갈등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갈등대처방식과 상대방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수를 센터링(Centering)하여 다중공성선을 감소시킨 후 '부부갈등×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센터링한 모든 항, 상호작용 항,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인 SES(수입, 직업, 교육수준)를 독립변수로,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2단계를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자신이 결혼

<표 3>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간의 상관관계

N=95

		부부갈등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		
SES		남편	아내	긍정적 문제해결	갈등 표출	갈등 회피	철회	긍정적 문제해결	갈등 표출	갈등 회피	철회	남편	아내	
SES	1.00													
부부 갈등	남편	1.00												
	아내	-.28**	1.00											
		-.23*	.67***	1.00										
남편의 갈등 대처 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27**	-.37***	1.00										
	갈등 표출	-.20*	.38***	.21*	1.00									
	갈등 회피	-.03	.19	.17	-.42***	1.00								
아내의 갈등 대처 방식	철회	-.10	.17	-.04	-.22*	.08	.39***	1.00						
	긍정적 문제해결	.18	-.19	-.32**	.30**	.02	-.20	-.15	1.00					
	갈등 표출	-.01	.44***	.49***	-.14	.28**	.09	-.09	-.26*	1.00				
결혼 만족도	남편	-.26*	.49***	.54***	-.25*	.21*	.18	.27**	-.31**	.27**	1.00			
	아내	-.17	.19	.25*	-.06	.16	.05	.10	-.16	.02	.45***	1.00		
결혼 만족도	남편	.09	-.66***	-.55***	.34**	-.35**	-.42***	-.33***	.17	-.34**	-.46***	-.20	1.00	
	아내	.22*	-.65***	-.68***	.24*	-.25*	-.27**	-.22*	.36***	-.52***	-.47***	-.26*	.62***	1.00
평균		11.04	1.63	1.66	2.91	1.67	2.00	2.04	2.87	1.93	2.08	1.88	3.51	3.26
표준편차		2.66	.47	.42	.57	.62	.54	.66	.58	.68	.66	.54	.45	.53

* $p<.05$, ** $p<.01$, *** $p<.001$

생활에서 느끼는 갈등과 자신의 갈등대처방식과 상대방의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SES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Model 1에 '부부갈등×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추가적 영향력을 살펴보아,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1)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1)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20에서 .68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성선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을 살펴 본 결과 1.23에서 2.47의

값을 나타내 모든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Model 1에서는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beta=-.48, p<.001$)과 갈등회피($\beta=-.28,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의 변인들은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53.5% 설명한다. 즉,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회피 대처방식의 사용을 적게 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2 는 .043($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Model 1에서 유의했던 변인들이 그대로 유의했고,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회피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beta=-.23, p<.05$)이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즉,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회피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아 갈등회피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N=95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 β		
		Model 1	Model 2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의 결혼만족도	SES	-.13	-.14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48***	-.46***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01	.02
		갈등표출	-.15	-.13
		갈등회피	-.28**	-.26**
		철회	-.11	-.15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02	.06
		갈등표출	-.04	-.02
		갈등회피	-.14	-.13
		철회	-.02	-.05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01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00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23*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철회 대처방식			.02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09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18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10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철회 대처방식			-.08	
ΔR^2			.043	
R^2		.535	.578	

* $p<.05$, ** $p<.01$, *** $p<.001$

(2)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 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을 살펴 본 결과 1.21에서 2.89의 값을 나타내 모든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Model 1에서는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beta = .52, p < .001$)과 자신의 갈등표출 대처방식($\beta = .26, p < .01$)과 남편의 철회 대처방식($\beta = .22,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의 변인들은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55.4% 설명한다. 즉,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는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 발생 시 자신은 갈등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적게 표출할수록, 남편은 철회를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2 는 .039($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Model 1에서 유의했던

변인들이 그대로 유의했고,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beta = .17, p < .05$)이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추가되었다. 즉,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 발생 시 자신은 갈등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적게 표출할수록, 남편은 철회를 적게 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서 자신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가져 아내가 낮은 수준의 갈등을 지각할 때는 자신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이지만, 높은 수준의 갈등을 지각할 때는 자신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으로 결혼만족도를 낮춘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리 긍정적인 문제해결 대처방식이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이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부부관계에서 갈등 자체의 요인이 부정적인 상호작용 요인으로 작용한 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해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5>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N=95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 β	
		Model 1	Model 2
	SES	.07	.06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51***	-.56***
아내의 갈등대처 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09	.14
	갈등표출	-.26**	-.24**
	갈등회피	.03	.07
	철회	-.08	-.11
남편의 갈등대처 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08	-.02
	갈등표출	-.04	-.09
	갈등회피	-.08	-.10
	철회	-.22**	-.23*
결혼기간 7년 이하 아내의 결혼만족도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17*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04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08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철회 대처방식		-.05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10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02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09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철회 대처방식		-.06
	ΔR^2		.039
	R^2	.554	.593

* $p < .05$, ** $p < .01$, *** $p < .001$

2)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22에서 .67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성선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1)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고,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을 살펴 본 결과 1.13에서 3.07의 값을 나타내 모든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Model 1에서는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beta = -.44, p < .001$)과 자신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beta = .36, p < .001$), 자신의 갈등회피 대처방식($\beta = -.24,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의 변인들은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64.3% 설명한다. 즉,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

발생 시 자신이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갈등회피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2 는 .080($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odel 1에서 유의했던 변인들 중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beta = -.50, p < .001$)과 남편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beta = .31, p < .001$)은 그대로 유의했고, 남편의 갈등회피($\beta = -.13, p > .05$)는 제외되었다. 즉,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상황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하려 할 때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서 자신의 갈등대처방식이나 상대방의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8~14년 사이 남편에게서 조절효과를 갖는 갈등대처방식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중년의 남성에게 있어 만족도를 느끼게 해주는 상황이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서의 상호작용 또는 성취감과 같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갈등대처방식이나 배우자의 대처방식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회피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beta = .28, p < .05$)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즉,

<표 6>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간의 상관관계

N=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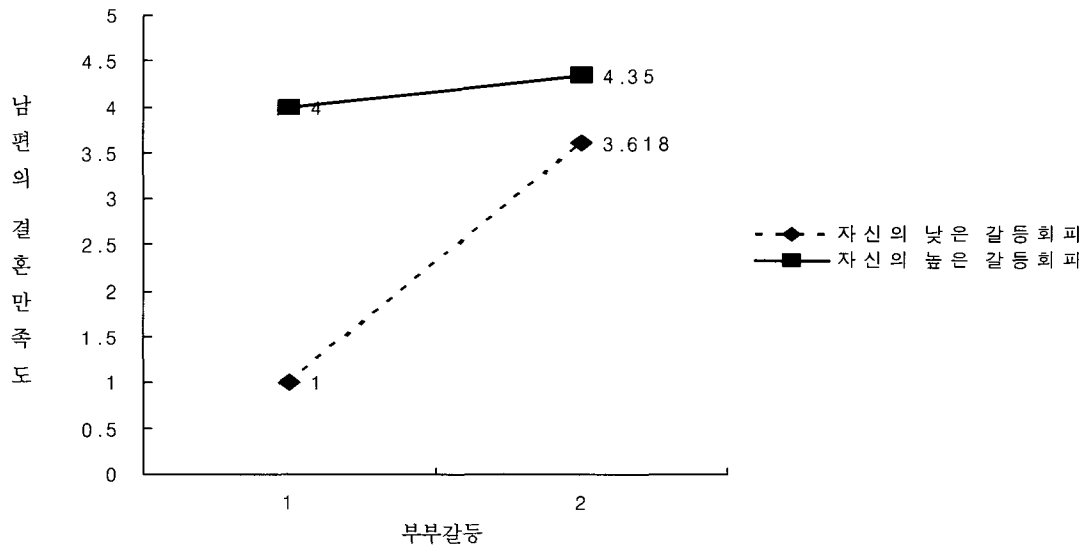
	SES	부부갈등		남편의 갈등대처방식				아내의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	
		남편	아내	긍정적 문제해결	갈등 표출	갈등 회피	철회	긍정적 문제해결	갈등 표출	갈등 회피	철회	남편	아내
SES	1.00												
부부갈등	남편	-.01	1.00										
	아내	-.09	.58***	1.00									
남편의 갈등 대처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10	-.32**	-.24*	1.00								
	갈등 표출	-.13	.64***	.48***	-.29**	1.00							
	갈등 회피	.20	.41***	.29**	-.32**	.18	1.00						
	철회	.11	.42***	.17	-.02	.32**	.51***	1.00					
아내의 갈등 대처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12	-.16	-.05	.33**	-.06	-.10	-.17	1.00				
	갈등 표출	.02	.34**	.43***	-.31**	.23*	.32**	.10	-.35**	1.00			
	갈등 회피	-.06	.39***	.44***	-.11	.38***	.29**	.41***	-.32**	.22*	1.00		
	철회	-.20	.07	.12	-.03	.13	-.12	.13	-.15	-.20	.42***	1.00	
결혼만족도	남편	-.05	-.67***	-.36**	.60***	-.43***	-.57***	-.38***	.30**	-.35**	-.25*	.03	1.00
	아내	.27*	-.39***	-.69***	.33**	-.43***	-.11	-.06	.02	-.37**	-.36**	-.08	.37**
평균	11.55	1.71	1.74	2.68	1.84	2.08	2.22	2.75	1.83	2.16	1.95	3.35	3.13
표준편차	3.03	.49	.45	.57	.67	.59	.69	.50	.64	.58	.59	.60	.54

* $p < .05$, ** $p < .01$, *** $p < .001$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 갈등이 낮을수록, 갈등상황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해결하려 할 때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서 자신의 갈등회피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느끼는 결혼안정성에 아내의 요인보다는 자신의 요인이

더욱 큰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임은혜, 2004)와 같은 맥락으로써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에서는 자신의 요인이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이 느끼는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갈등대처방식은 남편 자신의 갈등회피 대처방식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부부 갈등 시 낮은 수준에서는



<그림 1>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의 갈등회피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표 7>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N=83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 β		
		Model 1	Model 2	
결혼기간 8~14년 사이 남편의 결혼만족도	SES	-.03	.04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	-.44***	-.50***	
	남편의 갈등대처 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36***	.31***
		갈등표출	-.01	.06
		갈등회피	-.24*	-.13
		철회	-.08	-.09
	아내의 갈등대처 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11	.06
		갈등표출	.03	.05
		갈등회피	.07	.02
		철회	.05	.00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16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08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28*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철회 대처방식			.02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02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02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08	
남편이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철회 대처방식			.05	
ΔR^2		.686***	.080*	
R^2		.643	.701	

*p<.05, **p<.01, ***p<.001

자신이 갈등회피를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갈등회피를 적게 하는 것이 자신의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부부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남편은 회피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Gottman (1994a)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부부사이에서 갈등 상황 시 결혼만족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편은 자신의 갈등회피 대처방식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 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인 VIF 값을 살펴 본 결과 1.14에서 4.63의 값을 나타내 모든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Model 1에서는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사회경제적 지위인 SES($\beta=.19, p<.05$)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beta=-.53, p<.001$)과 자신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beta=-.19, p<.05$)과 남편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beta=.23,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변인들은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55.0% 설명한다. 즉,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 발생 시 남편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할수록, 자신은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 시 부인이 요구형인 경우보다 남편이 요구형인 경우 결혼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Heavey 등(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갈등 발생 시 그러한 갈등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내에게는 부부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상호작용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결혼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결과는 이론에 지나지 않아 관찰을 통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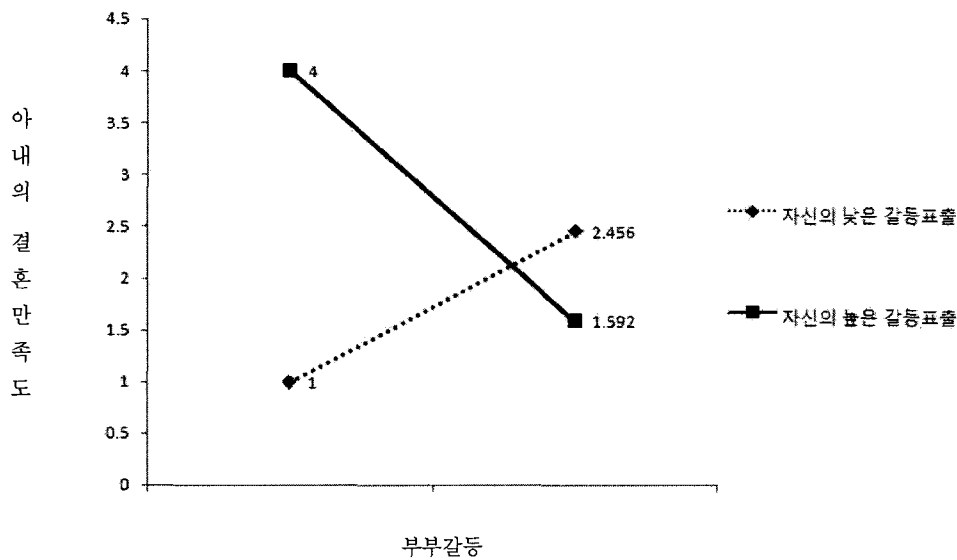
<표 8>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N=83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화 β	
		Model 1	Model 2
	SES	.19*	.22**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	-.54***	-.40***
아내의 갈등대처 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20*	-.17
	갈등표출	-.13	-.09
	갈등회피	-.20	-.25*
	철회	.09	.12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갈등대처 방식		
	긍정적 문제해결	.25**	.29**
	갈등표출	-.02	-.22
	갈등회피	.20	.16
	철회	-.04	-.13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18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29*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09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철회 대처방식		.08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		.18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표출 대처방식		.34*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회피 대처방식		.06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철회 대처방식		.03
	ΔR^2	.605***	.098*
	R^2	.550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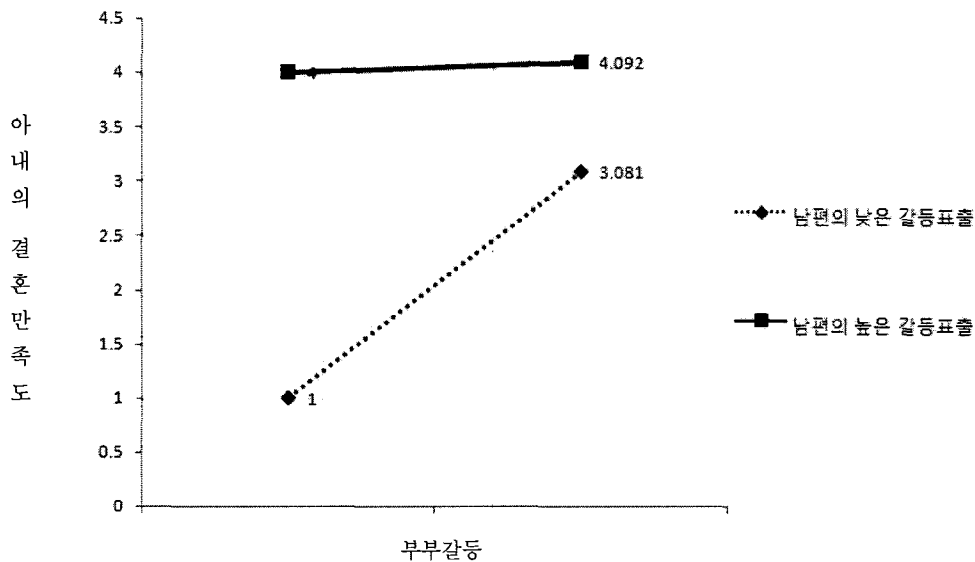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Model 2에서 추가된 R^2 는 .098($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Model 1에서 유의했던 변인들 중 사회경제적 지위인 SES($\beta = .22, p < .01$)와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beta = -.40, p < .001$)과 남편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beta = .29, p < .01$)은 그대로 유의했고, 아내의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beta = -.17, p > .05$)은 제외되고 자신의 갈등회피 대처방식($\beta = -.25, p < .05$),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아내의 갈등표출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beta = -.29, p < .05$)과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남편의 갈등표출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beta = .34, p < .05$)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즉,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

에서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갈등 발생 시 자신이 갈등회피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고, 남편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할수록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서 자신의 갈등표출 대처방식과 남편의 갈등표출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 유지에 아내나 남편의 긍정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갈등이 발생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보다 기능적인 부부관계의 향상은 남편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한국의 가부장적 부부관계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2>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아내의 갈등표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그림 3>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의 갈등표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결혼기간 8~14년 사이 아내가 느끼는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갈등대처방식은 아내의 갈등표출 대처방식과 남편의 갈등표출 대처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표출이 낮은 수준의 갈등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수준의 갈등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 남편의 대처유형이 공격형, 유아형, 변덕형일 때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낮았다는 고현선과 지금수(1995)의 연구결과나 아내가 요구적인 경우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부인이 요구형인 것보다 남편이 요구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Heavey 등(1993)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갈등을 지각하는 아내에게 있어 갈등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친밀감을 중시하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갈등을 느끼는 아내에게는 언어적·비언어적인 갈등표출이 커다란 싸움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별과 결혼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남편과 아내 모두 긍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는 남편보다 갈등표출 대처방식을, 남편은 아내보다 철회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시 아내는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결혼생활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로 느끼는 경향이 높다. 반면에 남편은 갈등 발생 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며 부부관계에서 더 독립성을 원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아내보다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Baucom et al., 1990; Christensen & Shrenk, 1991; Gottman & Krokoff, 1989)나 국내의 선행연구(최혜경·노치영, 1994)와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 남녀의 성차가

뚜렷하며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생활을 임하는 태도에서 더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편이 아내에 비해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 본 연구도 결혼만족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과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갈등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기간 7년 이하 남편과 아내는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기간 8~14년 사이의 남편은 갈등회피 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아내는 자신의 갈등표출과 남편의 갈등표출이 조절효과를 갖는 대처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초기에는 부부관계에 있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Thomson & Walker, 1991), 아내가 결혼생활에 대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지각하며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로 자신을 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후기에는 전반적으로 아내의 결혼만족이 남편의 갈등해결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남편의 결혼만족이 아내의 갈등해결방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외국의 선행연구(Kurdek, 1994)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써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부부의 권력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변화해 가고 있고,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부부관계에 내재되어 있어, 보다 기능적인 부부관계의 향상은 남편에게 달려 있다는 선행연구(노치영·최혜경, 1996)를 지지하면서 아직도 한국의 가부장적 부부관계 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상호작용할 때 결혼만족도에 조절 역할을 하는 대처방식이 아내는 자신의 요인과 남편의 요인이 둘 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은 아내의 요인보다는 자신의 요인이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여 주는 부부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부 성차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갈등 상황 시 결혼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 변인으로 갈등대처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는 결혼생활에서 부정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조절 역할을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부부 쌍으로 하여 샘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모형을 성별과 결혼기간으로 두 번 나누어 하나의 연구모형에 속하는 사례수가 적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늘려 본 연구결과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 남편과 아내에게서 조절역할을 하는 갈등대처방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부갈등 시 바람직한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남편과 아내에게 교육시킬 결혼준비 교육이나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접수일 : 2007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8월 03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9월 06일

【참 고 문 헌】

- 강학중·유영주(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 기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61-84.
- 고현선·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권오실(1995). 부부간의 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과의 관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노은영(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김명준·전인식·백연정(2003). 성격유형과 우리의 삶 **CD**. 서울: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민녀·채규만(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은신(1992). 결혼 초기 주부의 역할 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1992). 결혼초기 부부의 역할 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87).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치영·최혜경(1996).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37-248.
- 박경란·이영숙(2005). 부인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9)**, 59-70.
- 박영화·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손정숙(1999). 결혼초기 무자녀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1990). 도시주부의 갈등정도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회**, **5**, 3-21.
- 안수진(1997). 신경증적 경향성과 결혼만족도: 책임귀인 양식과 문제해결행동의 매개변인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선주(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 유계숙·천혜정·김양호·전길양(2003). 부부탐구. 서울:신정.
- 유영주(1993).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제1권**.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이근후·박영숙(1998). 도시가족의 부부 역할 갈등과 가족의 안정성에 관한연구. **가족과 문화**, **10(1)**, 1-33.
- 이미선·권귀연(2005).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7)**, 93-107.
- 이미영·박혜인(1995). 전화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 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이선미·권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이영자·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47-53.
- 장은경(2001).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세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외 7인(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정경숙(1998).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해결 방식과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연구: 중졸학력 주부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 조성경 · 최연실(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35.
- 조유리 · 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천혜정 · 최혜경 · 강인(2006).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법의 차이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79-202.
-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61-84.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선희(2002). 부부관계. 서울:학지사.
- 최혜경 · 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통계청(2005).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홍원표(1993). 도시 맞벌이 부부의 갈등관계: 부산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 Giddens, 황정미 · 배은경 역(1997).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 U. Beck E. Beck-Gernsheim, 강수영 · 권기돈 · 배은경 역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서울: 새물결
- Adelman, P. K., Chadwick, K., & Baerger, D. R.(1996). Marital quality of black and white adults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361-384.
- Bowman, M. L.(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 Measuring marital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63-474.
- Brody, G. H., Arias, U., & Fincham, F. D.(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08-421.
- Brown, J. H., & Brown, C. S.(2002). *Marital therapy: Concepts and skills for effective practice*. Thompson Learning.
- Burleson, B. R., & Denton, W. H.(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84-902.
- Christensen, A., & Heavey, C. L.(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oleman, J. C.(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 Conlin, M. A.(1994).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timacy in married couples: A meta-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pperdine University.
- Crohan, S. E.(1996). Marital quality and conflict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frican american and whit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33-944.
- Denton, W. H., Burleson, B. R., Hobbs, B. V., Von Stein, M., & Rodriguez, C.(2001). Cardiovascular reactivity and initiate/avoid patterns of marital communication: A test of Gottman's psychophysiology model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4**, 401-421.
- Driver, J. L., & Gottman, J. M.(2004). Daily marital interactions and positive affect during marital conflict among newlywed couples. *Family Process*, **43(3)**, 301-314.
- Gottman, J. M.(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6-15.
- Gottman, J.(1994a).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Y.: Simon & Schuster.
- Gottman, J. M.(1994b).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ottman, J.(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Norton.
- Gottman, J. M., & Levenson, R. W.(2000). The timing of

-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Kitzman, K. M.(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13.
- Kurdek, L. A.(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21-241.
- Kurdek, L. A.(1994).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gay, lesbian, heterosexual nonparent, and heterosexual par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705-722.
- Kurdek, L. A.(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Levenson, R. W., Carstensen, L. L., & Gottman, J. M. (1994). The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affect, physiology, and their interrelations: A study of long-term marri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56-68.
- Lussier, Y., & Sabourin, S.(1999). Personality and marital adjustment: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51-660.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C.(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Jossey-Bass.
- McAlister, F.(1995). *Marital breakdown and the health of the nation*. London: One Plus One.
- Miller, G. E., Dopp, J. M., Myers, H. F., Stevens, S. Y., & Fahey, J. L.(1999). Psychosocial predictors of natural killer cell mobilization during marital conflict. *Health Psychology*, 18, 262-271.
- Myers, M. S., & Booth, A.(1999). Marital strains and marital quality: The role of high and low locus of contro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423-436.
- Natarius, C., & Markman, H.(1993). *We can work it out: Making sense of marital conflict*. Putnam.
- Noller, P., Feeney, J. A., Bonnell, D., & Callan, V. J.(1994). A longitudinal study of conflict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33-252.
- Orbuch, T. L., House, J. S., Mero, R. P., & Webster, P. S. (1996). Marital quality over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162-171.
- Prager, K. J.(1991). Intimacy status and couple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4), 472-476.
- Robert, L. J., & Krokoff, L. J.(1990). A time-series analysis of withdrawal, hostility, and displeasure in satisfied and dissatisfied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5-105.
- Steinberg, L., & Silverberg, S. B.(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 of 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51-760.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Terkelsen, K.(1980). Toward a theory of the family cycle. In E. A. Carter & M. McGoldrick(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Thompson, L., & Walker, A. J.(1991). Gender in families. In A. Booth(Ed.), *In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pp. 76-102). Putnam.
- Vuchinich(1987). Starting and stopping spontaneous family confli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5, 177-188.
- White, L. K., & Booth, A.(1991). Divorce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2, 5-21.
- White, L., Booth, A., & Edwards, J.(1986).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Why the negative corre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7, 131-147.
- Wilckarama, K. A. S., Lorenz, F. O., & Conger, R. D. (1997). Marital quality and physical illnes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43-155.